

국가 폭력 맞선 민초들…‘감사·연대’의 메시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시국이다. 이런 시국에서 5·18 광주주의 아픔을 정면으로 겪어왔던 시인의 소회는 정말 납득했을 것이다. 12·3내란을 통해 5·18항쟁이 오버랩되는 것은 시인에게는 당연한 이치였을 것이다.

이런 시국에서 촉발돼 다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시집이 나왔다. 5월 광주를 형상화한 시편들을 꾸준히 발표해온 전남 나주 출생 박선옥 시인이 펴낸 일곱 번째 시집 ‘무등산’ (평사리 刊)이 그것이다.

5공 정권에 의해 모든 매체가 강제 폐간된 뒤 등장한 무크 ‘실천문학’의 제1호 시인으로 1982년 등단한 시인은 일찍이 김춘태 시인이 “5월 광주가 탄생시킨 시인”이라고 말한 바 있을 정도로 광주를 떠나 타지살이를 해오는 동안 내내 그의 뇌리 속에는 오월 광주가 파리를 틀었다. 군사독재정권에서부터 12·3계엄까지 이땅의 민주주의가 흔들릴 때마다 민주주의의 고본같은 5월 항쟁정신을 상기하고 한 달음에 달려가 민주화를 외쳤던 장본인으로 이번 시집 ‘무등산’이 지향하는 세계가 어떤 저항점을 갖고 있는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앞서 선보였던 독립운동가 기림시집이자 여섯번

5월 광주 노래했던 박선옥 제7시집 ‘무등산’

12·3계엄 오월 아픔 상가…상처 치유 기원

4부 구성…‘5·18 항쟁’ 연작시 23편 수록도

째 개인시집인 ‘풍찬노숙’이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장시를 수록해 서사의 지평을 넓혔다면, ‘풍찬노숙’ 이후 3년 만에 펴내는 7시집 ‘무등산’은 역사에 대한 반추, 미래에 대한 전망이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집은 내란 등 부조리의 시대 악몽을 떨쳐 내며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의 기록으로 이해하면 된다. 불안한 나날을 살아낸 모든 이들과 함께 작은 비망곡을 펼치고 독자들에게 조심스레 건네는 행위라는 것이다. “언어도단의 시대가 도둑처럼 왔” (시인의 말) 지만,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무등산’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제1~3부와 제4부로 나뉘어 접근할 수 있다. 서로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1~3부에서는 평범하지 않은, 아니 경이로웠던 일상을 36편의 시편에 담았고, 4부에서는 현대사의 비극인



5·18 광주를 연작시 23편의 시편에 담아내고 있다.

시인은 제4부로 구성된 연작시 ‘동토에서 피어난 봄의 노래’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 이제 낮이나 밤이나 억만 발걸음 멈추지 말자” (‘23. 무진악(武珍岳) 땅울림’)며 대동단결과 내일을 위한 전진을 다짐함으로써 종자부를 찍고 있다.

이 시집 4부에 45년 전 신군부의 무도한 계엄과 광주학살의 만행을 배치했다. 이는 역사를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반추하며, 그 교훈을 잊지 말자는 다



점의 뜻에서다. 광주사람들은 비상계엄과 계엄군이 처음이 아니다. 그 공포스런 기억을 다시 마주해야 했다. 내란을 올곧게 기억해가자는 점이 4부에 광주의 시적 서사를 넣은 이유다.

1부 ‘호점란’에서는 시인이 새롭게 이사한 터전에서 마주하는 일상들을 읊기며, 빛이 꽃들과 의기투합해 이룬 신비를 노래하고 있고, 2부 ‘작은 새’와 3부 ‘손돌목’에서는 일제와 국가경비대, 군통수권자, 미국 이민국, 국가 고위책임자들에 의해 짓밟

혔지만, 이를 견디고 극복해 왔던 민초들, 앞서 이끌었던 선각자 등 흩어진 동서고금의 조각들을 교차하며 오간다. 4부 ‘동토에서 피어난 봄의 노래’에서는 전두환의 군사 반란과 5·18 광주를 다룬 23개의 연작시로 현대사의 비감을 응축해 놓았다. 박정희의 죽음, 이 순간부터 시작된 전두환 세력의 음모와 군사 반란, 총정호현, 사복 사태, 서울의 봄, 광주의 가두시위, 그리고 광주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압살,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광주의 저항과 참혹한 학살 과정을 그린다.

시인의 시집 ‘무등산’은 일상이 무너진 그날 이후, 어떻게 눈을 반짝이고 귀를 열어 버렸는지, 어떻게 흩어져 조각났던 일상의 감정을 추스르고자 애썼는지를 조망할 수 있다. 또 시인이 경험했던 5·18 광주의 시간들을 통해 마침내 꽃들과 빛의 의기투합이 이룬 우리 역사의 순간들을 자각한다. 어머니산인 무등산의 땅울음이 지켜낸 우리들의 오늘을 펼쳐 보이는 게 시적 주요 담론들이다.

평사리 관계자는 서평을 통해 “이 시집은 빛을 갈망하는 시인의 개인사와 더불어 국가 폭력에 맞서 왔던 민초들의 억만 발걸음에 대한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가 담긴, 시대의 심장 같은 작품”이라고 전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ACC 우수 어린이 콘텐츠, 광명서 만난다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3월 8일까지 광명시민회관에서

ACC재단. 광명문화재단과 협력…확장·유통 ‘눈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사장 김명규·ACC재단)은 최근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어린이 전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을 개막했다. ACC재단과 광명문화재단이 공동 기획한 이번 전시는 오는 3월 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이뤄진다.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는 ACC재단이 발간한 아시아 옛 이야기 그림책을 실감형 콘텐츠로 개발·구성한 전시다.

전시는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 이식물 호수의 술루우수우, 세 친구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림책 속 장면을 오감으로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연출해 어린이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였다. 또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그림책을 읽고 그리기와 종이 접기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 역시 마련됐다. 이를 통해 가족 단

위 관람객이 아시아 문화와 이야기를 보다 친근하게 접할 수 있을 예정이다.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여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은 어린이 전시 콘텐츠다. 이번 광명 전시는 우수한 어린이 콘텐츠가 다양한 지역 문화공간으로 확장·유통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명규 사장은 “이번 전시는 ACC재단이 개발한 도서와 콘텐츠가 전당을 넘어 외부 기관에서도 충분한 유통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우수한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다양한 유통 모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최근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어린이 전시 ‘아시아 이야기 꾸러미: 신나는 그림책 모험’을 개막했다.

“임방울국악교실서 명인·명창에 전통예술 배워요”

임방울국악진흥회, 내달 9일부터 수강생 모집

(사)임방울국악진흥회는 2026년 ‘임방울국악교실’에 참여할 수강생을 오는 2월 9일부터 모집한다.

‘임방울국악교실’은 광주가 낳은 국창 임방울선생의 숭고한 예술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향 시민의 예술 역량 축적과 국악 인구 저변 확대, 국악의 생활화를 꾀하기 위한 취지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6층 판소리시민체험장에서 운영된다. 임방울국악교실은 판소리·민요·한국무용·고법장고·가야금병창 등 총 5개 과목이 운영된다.

판소리 김정훈(제33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을 비롯해 민요 마미숙(제23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한국무용 박선옥(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 고법장고 한정민(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법 이수자), 가야금병창 이정애(제14회 임방울국악제 가야금일반부 최우수상) 등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인원은 각 강좌별 20명 이상이다. 강좌는 1회 2시간이며, 수강료 매달 1만원으로 국악교실 사무용품 및 비품 구입에 쓰인다.

수강을 희망하면 임방울국악진흥회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21-0731~2.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생성형 AI·SNS…이미지 과잉 속 ‘산수’ 재해석

광주신세계갤러리는 2026년 첫 전시로 광주를 대표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의 초대전으로 꾸민다. 이 초대전은 생성형 AI, SNS 등으로 인한 이미지의 과잉 속 산수화를 재해석해 ‘보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묻는 전시가 될 전망이다.

‘이이남의 산수극장: 고사관수, 세상을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오는 3월 1일까지 광주신세계백화점 본관1층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전시는 물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선비를 그린 ‘고사관수도’를 메인 작품으로 한해의 계획을 세우는 시기의 태도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수’ 시리즈 최신 연작과 신년 기념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2005년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수상 작가로, 고전 회화와 뉴미디어 기술을 결합한 작업을 통해 국내외에서 꾸준히 주목받아 온 작가는 2018년 남북 정상 회담, 2025년 APEC 정상회의 등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선보이며 널리 알려지기도 했다.

이번 전시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어디에서 서서 그것을 바라보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스마트폰과 SNS,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이미지가 끊임없이 생성·유통되는 오늘날, 작가는 ‘보는 행위’의 의미에 주목하며,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선택하고 마주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전시의 주요 모티프는 관람자가 시선을 이동하며 풍경을 감상하는 와우(偶遊)를 통해 완성되는 회화 장르로 단일한 시점이 아닌, 다층적인 시선을 전제로 한 전통 산수화다. 이 작가는 이런 산수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전통 매체와 최신 기술을 넘나드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풍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

신세계갤러리,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초대전

3월1일까지 ‘산수’ 시리즈 최신 연작·신년 기념작



이이남 작 ‘해체된 자화상’

선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다. 고전과 현대, 평면과 입체, 회화와 영상이 한 공간에서 중첩되는 ‘산수극장’이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했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작품은 ‘잠자는 박연폭포’다. 겸재 정선이 그린 120cm 크기의 원화 ‘박연폭포’를 감상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720cm 크기의 영상 설치 작업으로 확장해 익숙한 이미지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유도한다.

쇼윈도와 갤러리 내부에는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입체산수’ 연작이 설치된다. ‘인왕제세도’와 ‘매화초옥도’, ‘금강전도’ 등 고전 명화를 청화 백자 스타일의 입체 작업으로 변화시키고 모니터를 삽입한 이 작품들은 감상자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이미지를 선보인다. 전시장 안쪽 상영실에서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및 클로드 모네의 ‘해돋이’가 빛을 매개로 함께 전시된다.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권에 서 제작된 두 작품은 영상 설치를 통해 하나의 공간 안에 병치되며, 관람객은 바닥에 투사된 빛과 색채 속을 거닐며 풍경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작가가 영감을 받은 동시대 미디어 환경의 특징 중 하나는 ‘파변화’다. ‘쇼츠’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파편적 영상은, 우리가 이미지를 인지하는 방식에 거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산수의 파편’ 연작과 말의 해를 기념하는 ‘파편 마상인물도’는 회화를 구성하던 요소 중 일부가 그려진 도자기 파편을 3D 영상으로 구현해 전체 작품의 일부가 새로운 의미와 미감을 가진 하나의 작품으로 제시된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